

CEO 동정

### 6월 KR열린마당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4일 본사에서 열린 '2012년 6월 KR열린마당'에 참석,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한 후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기업, 자랑스러운 공기업이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전북도지사 등 면담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5일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증축과 관련하여 공단을 방문한 김완주 전북도지사, 유성업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등을 면담하고, "정읍역의 2014년 개통을 위해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단계별 건설 추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철도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 체결



김광재 이사장(한국철도협회 회장)은 지난 7일 개최된 '철도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 체결식'에 참석, "급변하는 국내 및 세계의 물류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업계를 지원하고 한국이 동북아 철도물류산업의 허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 차관 방한단 면담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ODA사업으로 진행중인 파라과이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초청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방한중인 루이스 마리아 페레이라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 차관 등 파라과이 방한단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

### 충북 오송에 철도기술 연구단지 조성

- 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 협약체결 -

공단은 지난 8일 본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과 충북 오송에 철도 R&D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과학연구단지 및 신교통시스템 연구·시험시설 조성, 시설과 장비의 공동사용 및 시험·연구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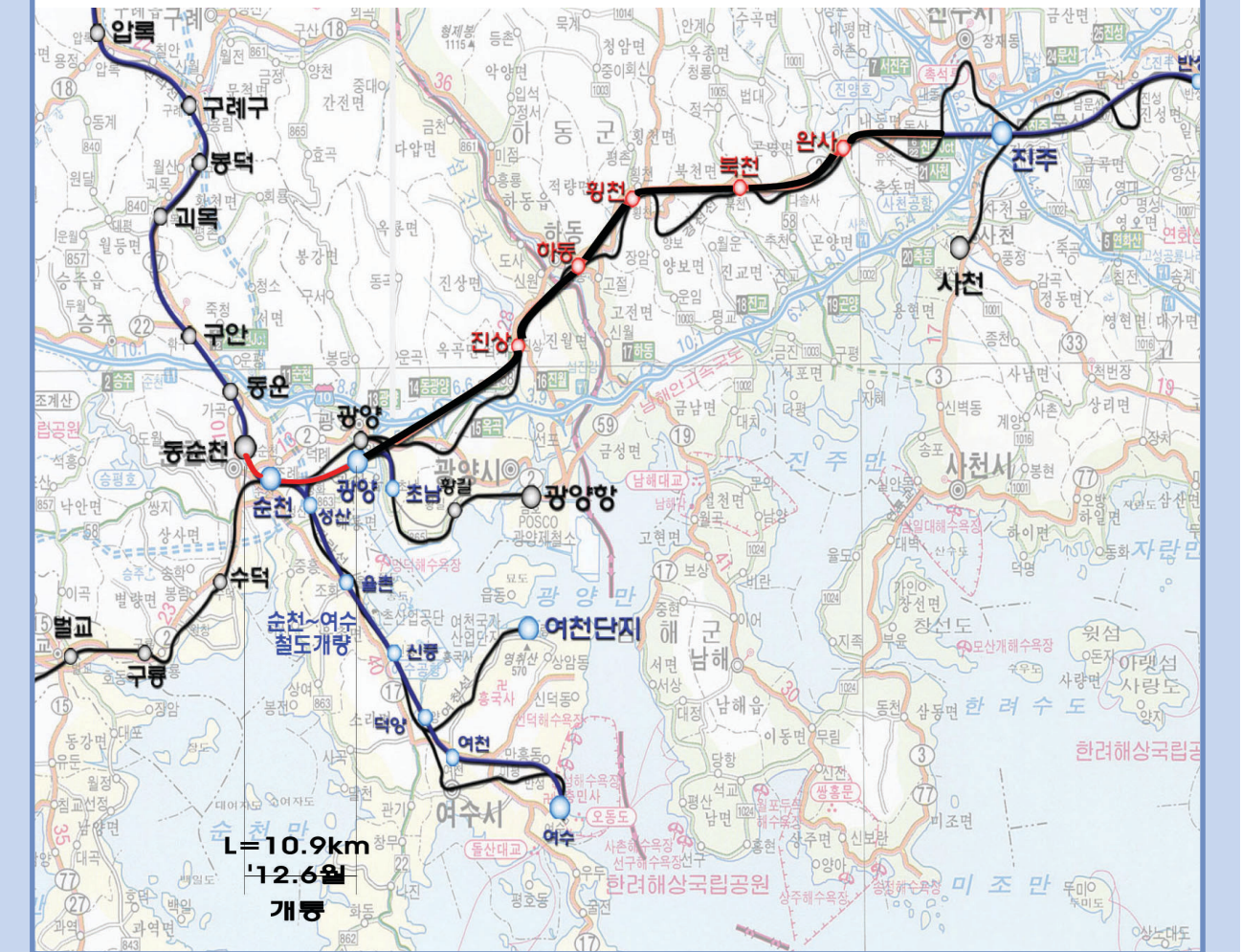
이날 협약 체결식은 공단 김광재 이사장과 철도연 홍순만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녹색교통과학연구단지 및 신교통시스템 연구·시험시설은 약 6만5천㎡의 부지에 건축면적 2만6천㎡ 규모로, 867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되며, 2015년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국내 최초로 극한상황에서 철도차량과 각종 부품을 시험할 수 있어 국내 철도차량과 관련 부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수입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자기부상열차 및 무가선 자상트램의 시험선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현장중심의 철도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 신기술 연구인력 양성과 철도 관련 기업의 기술이전, 기술지도, 창업지원 등의 산학연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철도산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과 철도연은 2005년부터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시설·전기분야 28건의 연구과제를 공동수행 중에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세계철도시장의 확대, 속도경쟁 가속화, 철도망 확충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철도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 이달 21일 개통

- 광양항, 남해안 일대 물류수송망 확대 기대 -

공단은 동순천~광양간(10.9km)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2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순천~광양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 4,031억원을 투입, '04년 7월에 착공하여 7년 11개월 만에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며, 개통행사는 지자체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1일 순천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사업이 개통되면 현재 1일 편도기준 21회인 선로용량이 112회로 대폭 증가되고, 열차운행 시간이 2분 단축(9분-7분)되며, 전기 기관차 운행에 따른 수송원가(동력비) 절감(디젤기관차 대비 약68%절감)으로 광양항 및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의 배후 수송망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건설 설계과실·안전사고 업체에 감점

- 공단, 2012년 참여업체 평가기준 개정 시행 -

공단은 효율적인 철도건설계획과 경제적인 설계 및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설계·감리·시공 업체의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업체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건설 참여업체의 설계 잘못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감점(각 -5점)하는 반면, 철도인접구간, 터널·교량 등 공사·시공 난이도에 따른 가점(+2점) 등을 신설한 것이다. 공단은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99개 현장의 69개 업체를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12년 6월부터 '13년 2월까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업체 평가결과 90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며, 우수업체로 선정된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 표창과 함께 입찰참가시 가점(1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용자 중심의 과잉시설 없는 적정설계·건설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공 중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철도기술인 양성 추진

- 2020년까지 박사 28명, 석사 487명, 기술사 140명 목표 -

공단은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년까지 석사 487명, 박사 28명, 기술사 140명 등 핵심인재 확보를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평균 석사 19명, 박사 2명, 기술사 5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박사 학위 취득은 올해 개원한 사내 '녹색철도대학원' 및 서울대 등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통하여 진행한다. 또한 철도분야별 '최고기술전문가(기술사)과정'을 통해 기술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철도기술사 과정 등 5개 과정 운영으로 올해까지 234명을 교육하였고, 내년에는 건축시공기술사 등 4개 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양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관심 있는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도울 예정이다. 2012년도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감사실 박민주 부장(전기안전기술사), 강인석 차장(건축시공기술사), 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 및 수도권본부 김용동 부장(철도기술사) 등 4명이 최종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공단은 이번엔 배출한 4명의 기술사를 포함하여 철도건설관련 20개 분야에서 총 90명(복수 기술사 자격자 8명 포함)이 99개의 철도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공단 설립('04) 이후 현재까지 매년 평균 5명이 합격한 결과이다. 오양교 인재개발실장은 "석·박사, 기술사 등 철도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철도강국 실현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현재('12년)	목표('20년)	비고
석사	325명	487명	증162
박사	9명	28명	증 19
기술사	99명	140명	증 41